

管理 番號	92-50
----------	-------

28	50
----	----

—〈南北軍事分科委員會〉—

第2次會議會議錄

1992. 3. 31

統 一 院

警 告 文

本 문건은 大韓民國의 安全保障上 중요한
祕密內容이 收錄되어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遵守하여야 하며 이를 違反할 때는 關係法
規에 의거하여 措置됩니다.

1. 關係者外의 閱覽 및 取扱을 금함.
2. 複製 및 複寫를 금함.
3. 直接的인 引用 및 公表를 금함.
4. 破棄期日을 嚴守하여야 함.

目次

1. 一般事項 3

2. 會議錄 7

1. 一般事項

가. 日 時： 1992. 3. 31(火) 10:00-12:15

나. 場 所： 板門店 우리측지역 『평화의 집』

다. 參席人員

	우 리 측	북 측
위원장	朴庸玉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김영철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위 원	金熙相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任台淳 (통일원 자문위원) 李榮浩 (국방부 대령) 金永鎭 (국방부 대령) 趙商勳 (외무부 심의관) 蔡俊錫 (국방부 판단관)	박용수 (조선인민군 소장) 박성진 (조선인민군 대좌) 리길청 (조선인민군 대좌) 김민현 (조선인민군 대좌) 박림수 (조선인민군 대좌) 원동연 (조평통 서기국 부장)
수행원	南相旭, 宋宇燮, 金吉根, 洪興柱, 柳鍾烈, 韓秀雄	주길산, 허영하, 조충한, 리석준, 박용국, 박일남

會 議 錄

2. 會議錄

<쌍방 委員 입장 및 人事交換>

남(박용옥) : 오래만입니다.

북(김영철) : 반갑습니다.

남(박용옥) : 자- (악수교환) 반갑습니다.

북(김영철) : 오늘, 군복 입었습니다?

남(김희상) : 예.

북(박성진) : 군복 입었습니다?

남(김희상) : 예...(웃음)

남(박용옥) : 여기, 아직 안달으셨구만... 자, 앉으실까요?

북(김영철) : 예, 앉읍시다.

남(박용옥) :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측 지역에 찾아주신 김위원장, 그리고 북측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참 흔히 요즘같은 세월을 우리가 “춘삼월 좋은 계절”이라 그러지요. 이런 좋은 계절에 또 우리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도 이처럼 좋은 회의를, 군사분과위원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북(김영철) : 좋은 계절에...

남(박용옥) : 좋은 만큼...

북(김영철) : 좋은 날에...

남(박용옥) : 예...

북(김영철) : ...우리 회담을 합니다. 옛말에 “한번 만나면 초면”이고,

남(박용옥) : 으흠-

북(김영철) : “두번 만나면 구면”이라 했습니다. 구면이라는 말에는 적어도 두가지 뜻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얼굴이 익다”는 뜻이겠고, 다른 하나는 속내까지도 알 수 있게 됐다-이런 말 같은데, 아직 우리는 서로 속내까지는... 아마 다 그 정도로 구면은 못되는 것 같아요.

남(박용옥) : 허헛허...

북(김영철) : 그래, 문제는 서로 잘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박용옥) : 그렇지요.

북(김영철) : 잘 알아야 문제토의를 진지하게, 합의점도 쉽게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박용옥) : 그래 지금, 아주... 그 초면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라고도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 흔히 회의를 처음 시작하거나 또 사업을 시작할 때 “시작이 반이다”이런 말도 있고, 또 일의 시작과 관련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는 말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일단 시작을 지금 한 것이고, 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저는 이게 다 잘 됐다고 봅니다.

왜냐...? 이미 우리 첫 단추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효시켰고, 또 분과위원회도 전부 다 이미 발족시켜서 우리도 지금 두번째로 만나고 있고, 또 비핵화공동선언도 발효시켰고...

첫 단추는 잘 끼워졌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미 분과위원회를 한번 열

고, 또 오늘 두번째 여니까 시작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인제 다 준비는 됐고 잘 나갈텐데... 진짜 우리가 시작도 했으니까, 거기다 단추도 잘 끼웠으니까... 인제 반이 아니라 한 4분의 3은 지금 진전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뜻에서 아주 이 오늘 회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될 이 회의, 또 7차고위급회담... 상당히 저는 그 희망적이고 아주 큰 지금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회의에 임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위원장 생각은...

북(김영철) : 좋은 계절에 좋은 말이 시작됐으니까..., 맑은 날에 벼락이 치는 법은 없겠지요 뭐.

남(박용옥) : 허허허...

북(김영철) : 그런데 문제는 잘 하는게 중요합니다.

무얼 잘 알아야 됩니다. 내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내 지난해 미국에서 온 『스칼라피노』라는 선생을 만난 적이 있소.

아마 박준장 알기야.

남(박용옥) : 어, 내 만나봤지요.

북(김영철) : 예... 『스칼라피노』 선생이 교수이고 박사이고 또 무슨 아세아문제 전문가라고 해요.

남(박용옥) : 그렇지요.

북(김영철) : 그 미국의 대아세아 정책, 대조선정책에서 일정한 권위가 있다고 해서...

남(박용옥) : 원로지요, 원로...

북(김영철) : 예. 내 그분을 원로라 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을 만나서... 저는 군인답기 때문에 그저 생각나는대로 통명스럽게 말했어요.

남(박용옥) : 으흠...

북(김영철) : 내 선생을 한번 만나자고 했다, 만나면 내 한번 욱하자고 했소— 이러니까, 나이 지긋한 분인데... 참을성 있게 내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왜 나를 욱하자고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 대답을 했어요. 내가 욱하자고 하고, 만나자고 한 것은 다른 기 아니라 내 우연한 기회에 당신이 쓴 조선반도정책에 대한 글을 읽었다— 근데 그 글은...

남(박용옥) : 독서를 많이 하신 모양이구면...(웃음)

북(김영철) : 아니..., 그 글을 읽어보니까 하나는 우리 조선에 대해서, 특히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글을 썼드라...

두번째는 내 그 책을 보고서 느낀 감이 우리 조선 민족, 특히 우리 공화국에 사는 우리 인민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점을 모르고 썼드라...

결국 그렇찮으니까, 모르고 쓴 글이다나니까, 견해가 대단히 일방적이고, 편협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대조선정책이... 그저 막말하면 강도적인..., 그것도 좀 있더라. 그래서 내 한번...

남(박용옥) : 허, 강도적—인...?

북(김영철) : 으응...

남(박용옥) : 어헛헛허...

북(김영철) : 그래서 내가 만나면, 한번 내가 욱하자고 했다..., 그래서 내

이렇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남(박용옥) : 역시 만나니까...

북(김영철) : 그러니까 『스칼라피노』가 하는 소리가 뭐인가...?

이북 평양에 와서 본즉 상당히 옛날에 듣던거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 확실히 모르고 쓴 글이 많다는 것, 이 아무리 교수고, 박사고, 전문가고, 원로고 해도 무얼 모르고 쓰면... 그렇게 누구말마따나 사람들에게 썩지 못할 피해를 지울 수 있습니다.

헌즉, 우리는 민족사를 논하는 큰-지금 마당에 참 주인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번 회담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 조선 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 둘째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 세째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가 뭐인가 하는 것 잘 알아야겠다...

남(박용옥) : 으흠...

북(김영철) : 그렇다면, 말하자면 그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회담도 잘 해나가야 될기고, 또 우리 땅의 특성에 맞게-그 군사적인 문제, 평화문제를 다루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내 이 생각은 내가 우연중에 하는게 아니라 항일대전 대포소리가, 승전 대포소리가 한참 울리는 40년초에 우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님께서 “조선사람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된다”는 유명한 연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연설에-“조선 땅에 땀줄을 묻고 있는 남아들은 조선을 잘 아는기 좋다, 그래야 모든 문제를 잘 타개해 나갈 수 있고 조선사람 이익에 맞

게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유명한— 그런 그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저 우리 서로 이 땅을 잘 알고, 이 민족을 잘 알고, 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걸 잘 알고 회답을 하면…아마 좋은 결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박용옥) : 좋은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 바로 우리가 저 다 잘 아는 옛날 손자에도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 그랬는데—, 우리가 서로를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요.

우리 남북한, 남북양측간에 서로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 동족으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서로를 좀 알아야 되겠다, 동족의 특질도 알고 지향도 알아야겠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칼라피노』교수도 그렇고, 『스틸웰』장군도 그렇고 이북에 갔다 하면은 김영철만 만나는데, 우리 김… 저 위원장께서 그냥 모든, 그 외국의 그 주요인사들을 다 도맡아 놓고 만나시는 것 같아요?

북(김영철) : 아니 뭐…

남(박용옥) : 으응?

북(김영철) : 그 누구든지 다 만나는데…

남(박용옥) : 아 저 그런 점에서 김위원장…!

북(김영철) : 으응?

남(박용옥) :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또 상당히, 지금 북측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걸 보고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북(김영철) : 감사합니다.

남(박용옥) : 그러니까, 앞으로 이 김위원장이 외국사람들 만나서 하는 모든... 그 이 좋은 말에 또 지혜를..., 이제 남북한관계에서 좀 지혜를 발휘해서 가지고 오늘 우리 회담이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음-지금 어떻게...

북(김영철) : 자리 정돈하지요.

남(박용옥) : 자리 좀 정돈할까요?

북(김영철) : 예.

남(박용옥) : 여기 자리 좀 정돈해 주시지요.

북(박성진) : 회상선생은 원래 군복 입으십니까?

남(김희상) : 아니 저...

북(박성진) : 특별히 입고 나오셨는지, 의미를 부여해서 입고 나오셨는지...

남(박용옥) : 아, 군인인줄 모르셨구만!

남(김희상) : 아니, 모를 리가 없을텐데...(웃음)

남(조상훈) : 원래 장군이십니다.

남(박용옥) : 그러면은 오늘 그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회의는 관례대로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관례대로 비공개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우리측 생각인데, 김위원장께서 그 점에 대해서...?

북(김영철) : 귀측의 요구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남(박용옥) : 아 좋습니다.

북(김영철) : 비공개하면 비공개, 공개하면 공개... 닳하지 않겠습니다.

남(박용옥) :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례대로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그리고 회의는 역시 우리가 양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데... 오늘 우리측에서 회의를 하게 되니까, 제가 그러면은 편의상 이 회의를 위해서 사회를 보도록 하고 - 먼저 제가 기초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위원장 기초발언을 듣고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이 기초발언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쌍방의 위원들, 남측 북측 쌍방 위원들한테 당부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 회의가 나와 김위원장 사이의 개인적인 회의도 아니고, 또 여기 나와있는 북측 위원장과 위원 7명, 우리 위원장과 7명의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회담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각각 자기 정부를 대표하고 자기 군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입장에 서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서로가 양측 정부와 군을 대표하는 공식적 입장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또 그런 그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또 한가지는 공동위원장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여기에 대표위원들이 발언을 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들이나 대표위원들이 발언을 필요로 하실 때는 각각 자기측 위원장에게 사전 승락을 받아서 하는 것이 회의운영상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위원들의 발언도 위원장들의 내용에 참고가 될,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간단히 언급하든가 하는 그런 그 발언이면 좋은데..., 위원장간에 그 서로 토의내용에서 벗어나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장황하게 얘기한다든가 하는 것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것은 서로 자제를 하고 삼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순서에 따라서 우리측 기초발언을...

북(김영철) : 근데 그...

남(박용옥) : ...하겠습니다.

북(김영철) : 무슨 새삼스런 소리를 강조하고...?

남(박용옥) :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고...

북(김영철) : 분과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회의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게 돼 있는데...

남(박용옥) : 허허헛...

북(김영철) : 박준장이 무슨 새삼스러운 소리를 강조해! 기본발언 하세요.

남(박용옥) : 지금 내 얘길 했는데, 내 다시 한번 상기를 합니다.

앞으로 양측이 발언하는데 회담에 불필요하거나 또 우리가 회담대표성에... 격에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라든가 발언을 서로가 자제해야 되니까, 그것을 다시한번 상기하니까,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기초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측 기조발언〉

김영철 위원장, 그리고 북측위원 여러분 !

북(김영철) : 연설문하나 주고 읽어야 되겠는데…?

* 우리측 기조발언문 전달

(기조발언 계속)우리는 오늘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나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가운데 불가침 분야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의 군사분과위원들이 다시금 모인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곳 『평화의 집』에 온 북측위원 여러분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금 온 거래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원활하게 실천에 옮겨짐으로써 민족사에 새로운 장이 펼쳐지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이와 같은 거래의 여망에 부응하여 맡은바 책임과 사명을 다한다는 각오와 함께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회의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

지난 3월 13일 제 1 차 회의를 통하여 남북 쌍방은 향후 군사분과위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각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쌍방은 다같이 불가침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합의사항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쌍방은 남북기본합의서 제 12 조의 명문규정에 따라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서는 제 7 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이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발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나는 이같은 공통인식과 의견일치가 앞으로 남북군사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쌍방은 불가침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작성될 부속 합의서의 성격, 작성방법과 시한, 그리고 향후 구성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등에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우리측의 견해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군사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과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에 관한 우리측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속합의서에 관한 우리측의 견해입니다.

첫째로 남북군사분과위원회가 어떤 성격의 부속합의서를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 14 조와 『분과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전문, 그리고 제 2 조 ①항과 ②항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 부속합의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속합의서에 반드시 상호 협의를 거친 구체적 이행대책이 담겨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남북쌍방이 명백히 합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칙적, 지침적 성격의 내용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충분히 반

영되어 있는 만큼, 부속합의서는 구체적 실천적 성격의 내용으로 작성·합의하여, 발효시키는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또한 부속합의서는 어디까지나 남북기본합의서에 부속되는 합의서인 만큼, 남북기본합의서의 테두리안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남북기본합의서 협의과정에서 제외되었거나 합의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부속합의서에 추가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또하나의 기본합의서를 만들자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남북간에 서명·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충실한 부속합의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추가적 합의를 해야 한다면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수정·보충조항에서 이에 대한 길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둘째로 부속합의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귀측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불가침 분야를 포괄하여 하나의 부속합의서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귀측의 이러한 주장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서에는 분과위원회별로 부속합의서를 하나만 작성한다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측은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 ②항이 분과위원회별로 “하나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귀측의 주장은 구문 해석상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2 조 ②항에서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부문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표현한 문장에서 구문상 “각각”을 꾸미는 말은 “협의한데 따라”이며, 『해당부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석은 어디까지나 “협의한데 따라 각각” 필요한 『부속합의서』를 만든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분과위원회는 남북기본합의서 제 9 조에서 제 14 조까지의 6개조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대책을 협의하고 그 협의결과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따라 각각 필요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개의 부속합의서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이 협의과정에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될 문제입니다.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부속합의서로서 갖추어야 할 성격에 맞도록 구체적 이행대책을 충실하게 반영시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하나하나 완급을 가려 순차적·축차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측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셋째로 부속합의서의 작성시한 문제입니다.

귀측은 불가침 분야의 포괄적 단일 부속합의서를 오는 5월의 제 7 차 남북고위급회담 때까지 서명·발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북쌍방이 군사분과위원회 소관분야에서 시한을 합의한 것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뿐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포괄적 부속합의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다른 모든

토의를 위한 귀측의 전제조건이나 라는 나의 질문에 김위원장은 명백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쌍방간에 시한을 합의한 바도 없는 부속합의서 작성에 일방적으로 시한을 부여하고 이를 사실상 전제조건화하여 여타 문제 토의를 회피하려 한다면, 이는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측은 부속합의서 작성에 시한성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시한성을 앞세운 나머지 구체적 실천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한채 부속합의서를 만들어 내자고 한다면 그것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엄연한 합의사항을 사실상 유린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

이상에서 나는 부속합의서 문제와 관련하여 제 1 차 회의에서 나타난 쌍방간의 견해차이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군사공동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우리측의 견해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 12 조에 의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기능과 임무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공동위원회가 다른 공동위원회의 성격과는 달리 협의기구인 동시에 실천기구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또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어디까지나 남북고위급회담 테두리내의 기구임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제 1 차 회의에서 귀측이 제시한 『군사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초안)』 제 4 조 군사공동위 합의사항 발효절차를 보면 쌍방 총리의 서명과 남북고위급회담에의 보고요건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군사공동위를 고위급회담의 테두리 밖에 두겠다는 것으로서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정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귀측의 연행묵 정무원총리도 제 6 차 고위급회담에서 “고위급회담은 공동위원회 사업을 정상적으로 요해·장악할 것”과 “또한 공동위원회의 운영과 합의사항의 집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위급회담이나 분과위 테두리안에서 해당한 대책을 제 때에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던 사실을 귀측은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귀측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남북기본합의서 제 12 조와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 2 조 ③항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동 합의서를 하나의 포괄적 부속합의서 내의 부속문건으로 격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합의사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명문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도 별개의 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어떻게 부속합의서의 부속문건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합의사항이 이미 정해져 있는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문제를 포괄적 부속합의서 속에 넣어 부속합의서가 그때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군사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킬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합의사항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 하거나 남북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과 준수를 다짐한 쌍방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

이상에서 지적된 제 1 차 회의에서의 쌍방간 견해차이를 고려하면서 앞으로 남북군사분과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군사분과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에 충실하게 불가침 분야의 구체적 이행 대책을 협의함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가 실천에 옮겨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가침분야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는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제 1 차 회의에서도 지적했듯이 남북간에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입니다.

군사분과위원회에서의 이행대책 협의는 다른 분야에 비해 심사숙고와 신중함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치 위험한 폭발물을 제거함에 있어서도 그 기술적인 처리순서와 방법에 맞게 해야 하듯이 첨예한 대치상태를 이루고 있는 남북간의 군사문제도 그 해결의 실마리를 잘 찾고 그 순서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어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견지에서 지난 제 1 차 회의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북기본합의서 발효후 3개월 이내에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기한내에 발족시킨다.

둘째,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시급한 실천조치로서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한다.

셋째, 여타 불가침분야의 합의사항은 쌍방간에 구체적 이행대책에 대한 협의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부속합의서로 채택한다.

우리측은 남북군사분과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이와같이 처리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와 남북군사직통전화 설치 문제는 제 7 차 남북고위급회담 이전에 가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우리측의 입장에 따라 나는 지난 제 1 차 회의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과 『남북군사당국자 사이의 직통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귀측에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문제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발족시키도록 시한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공동위원

회와는 달리 그 임무·기능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쌍방이 합의사항에 충실한다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북쌍방은 제 1 차 회의에서 이미 각기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합의사항을 고려하여 제 7 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쌍방 총리가 서명·발효시켜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남북쌍방이 군사분과위원회 제 1 차 회의에서 제안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비교해 보면 몇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의 내용중 쌍방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은 자문위원을 두는 문제, 군사공동위원회의 기능문제, 회의개최의 빈도문제, 군사공동위원회의 합의문건 서명·발효문제 등입니다.

이와 같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성격과 해야 할 일들의 특성에 대한 오해와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지만 쌍방간에 토의를 진전시킨다면 대체로 견해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대한 쌍방간의 견해차이를 되풀이하여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귀측도 아는 바와 같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다루도록 되어 있는 군사

적 신뢰조성과 군축관련 사항들을 협의하는 일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수많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남북간의 과밀한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한 가운데, 이들 군사력에 대한 운용적 통제와 구조적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순서와 방법을 올바르게 잘 정하고 엄밀한 감시와 검증하에 질서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마치 불발탄을 잘못 건드려 폭발의 참사를 빚는 것과 같은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구성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 그리고 검증문제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협의를 구체적·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 제 12 조에 명시된 임무 이외의 추가적인 임무부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우리측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에 충실한 것인만큼, 우리측 안에 대한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남북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귀측은 남북군사직통전화 설치문제를 단일부속합의서 가운데 하나의 조항으로 취급하여 다른 문제들이 모두 타결되어야 실천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 제 13 조는 남북사이의 우발적 무력충돌과 그 화

대방지를 위한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을 독립조항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문제는 독립된 부속합의서로 채택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더욱이 남북사이에 다른 직통전화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당국자간에 별도의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렇게 해야 할만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인 만큼, 그 합의의 취지에 맞게 부속합의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군사당국자 사이의 직통전화는 우발적인 무력충돌 발생과 같은 긴급사태시에 쌍방 군사당국자간에 긴급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긴급사태시의 긴급 의사소통은 어디까지나 신속성과 정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난청 등으로 인한 오해나 오보가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는 원칙적으로 전신타자기에 의한 문서통신을 해야 하며, 전화통지문의 교환방식은 송수신의 어려움과 송수신의 지연, 그리고 오보의 위험성으로 인해 적절치 못한 것입니다.

또한 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는 우발적 무력충돌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유선통신 회선이 단절되었을 경우에 쌍방간의 긴급통신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무선통신 회선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측이 제안한 『남북군사당국자 사이의 직통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은 이와 같은 특수성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

제 13 조에 명시한 규정에도 매우 충실한 안인 것입니다.

귀측 역시 우발적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당국자 사이의 직통전화를 설치할 것을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고 이를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더이상 이에 관한 논의를 뒤로 미루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측은 귀측이 이제라도 이같은 우리측 입장에 동의함으로써 제 7 차 남북고위급회담 이전에 남북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에 대한 합의를 이룩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타 불가침 분야의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남북쌍방은 우선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과 관련한 용어들의 개념부터 명확히 규정해야 하겠습니까.

남북쌍방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각기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부속합의서를 만든다 해도 그 실천을 보장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군사활동을 군사정전협정과 이의 부수 합의사항에서 규정한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 연락수단으로서 남북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의 설치·운영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에 관한 절차 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나는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분야의 이행과 준수

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다음과 같은 협의과제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1. 무력사용, 무력침략, 우발적 무력충돌 등 주요 용어의 정의에 관한 문제
2.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시 긴급조치 및 사후처리 문제
3. 우발적으로 상대측 관할구역 침범시 상호통보 및 처리문제
4. 지상·해상·공중에서 불의의 사고에 따른 긴급대피 허용과 조난구조 문제
5. 군사정전협정 관련기구의 정상화를 위한 협조 문제
6. 평화적 목적을 위해 남북쌍방의 차량, 선박, 비행기 등 수송수단이 남북불가침 경계선 및 상대측 구역을 통과·운행하는 경우, 이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문제
7. 기타 불가침 분야의 구체적 이행대책과 관련하여 남북쌍방이 협의할 문제

나는 이상과 같은 과제들이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분야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며 기초적인 협의과제들이라고 생각하며, 남북쌍방이 이같은 과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또 그 협의결과에 따라 부속합의서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작성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나는 이상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문제와 남북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문제, 그리고 여타 남북사이의 불가침 분야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문제에 관한 우리측 입장을 모두 밝혔습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발족시한을 1개월여 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으며, 남북군사직통전화는 시급하면서도 합의가 용이한 문제인 만큼, 더이상 토의를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 회의에서, 쌍방이 이미 제시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에 대한 토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귀측에 제의합니다.

또한 『남북군사당국자 사이의 직통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안)』도 우리측 안을 중심으로 토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측으로서는 위원접촉을 통해 이 문제들에 대한 실무적 토의를 곧바로 진행하는 것도 좋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나는 오늘 회의에서 불가침 분야 합의의 구체적 이행대책들이 심도있게 논의됨으로써 상호 의견접근을 보고 부속합의서와 관련한 견해 차이도 해소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남북의 군사분과위원들은 오늘 회의를 진지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시킴으로써 우리를 지켜보는 겨레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시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박용옥) : 이것으로서 내 기조발언을 마치겠는데, 다음 북측 위원장께서

기조발언을 해주기 바랍니다.

북(김영철) : 수고했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남(박용옥) : 아 내 발언을, 기조발언을 끝냈으니까...

북(김영철) : 네.

남(박용옥) : 김위원장, 발언을 하세요.

북(김영철) : 혹시, 할 말을 더 할게 없는가 해서 묻습니다.

박준장은 오늘 기본발언을 준비하면서, 또 그 기본발언을 하면서 단 한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오늘 진행되는 군사분과위원회의 전도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에서 열릴 7차 북남고위급회담의 전도에 대해서, 또 오늘 박준장이 읽고 있는 그 기조발언을 듣고 있는 7천만 민중의 심중에 대해서... 단 한번, 단 한순간이라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으로 기대됐던 바와는 상당한 정도로 거리가 먼 기조발언입니다.

나라와 인민의 기대, 온 나라와 인민의 요구에 맞게 나는 오늘 그 기조발언의 내용이 관통되리라고 생각하고 이 마당에 나왔습니다.

속담에 “한사람이 가는 길은 가지 말고 천사람, 만사람이 가는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뜻인즉 민중이 바라는 길, 인민이 바라는 길을 가라는 뜻입니다. 하물며 왜 통일을 지연시키려는, 평화를 지연시키려는, 군사적 대결을 해소시키는 이 문제에 제동을 걸려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연설로 기조발언이... 말하자면 모든 내용이 관통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나는 준비한 발언을 읽고 전반적인 1차 분과회의로부터 오늘
의 회의에 이르는 귀측의 립장에 대해서 논평하자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기초발언 읽겠습니다.

〈북측 첫 발언〉

* ()안은 문본에 없는 말을 덧붙이거나 수정하여 낭독한 내용임.

남측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

오늘 우리는 지난 3월 13일 처음으로 북남군사분과위원회 제1차회의를
가진데 이어(서) 제2차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3월달에 들어와서 북남정치분과위원회와 북남협력교류분과위원회 회의
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사분과위원회 제2차회의가 예정대로 열린것
은 력사적인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리
행의 길에서 또 한걸음의 전진이며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두번째로 군사분과위원회가 막을 올린 이시각 우리는 제1차 회의 진행
정형에 대하여 (교훈적으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측도 아는바와 같이 지난번 제1차회의에서 우리는 지난 2월 19일에
발효된 《북남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요구대
로 북남합의서의 《제2장 북남불가침》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와
북남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측이 내놓은 합의서안에는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리행하기 위한 구
체적(인) 대책들이 포괄적으로 반영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쌍방이 다같이 그러한 안들을 내놓고 (서로가 그러한 안들을 내놓고) 1차회담에서부터 실질적인 문제토의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 기울이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모처럼 발효시킨 북남합의서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 사항들을 하루빨리 실천에 옮김으로써 온 겨레가 절절히 바라고있는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진지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제1차회의에 립하는 귀측의 립장과 자세는 우리와 온 겨레의 기대에 심히 어긋나는 것이였습니다.

우선 귀측은 제1차회의에 응당 가지고 나와야 할 불가침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안을 애당초 가지고 나오지(조차) 않았슴니다.

귀측이 부속합의서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슴니다.

다아는바와 같이 군사분과위원회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불가침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만드는것입니다.

군사분과위원회에서 부속합의서토의를 끝내야 쌍방총리들이 서명하여 발효시킬수 있고 새로 구성, 운영되게 될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길수 있다는 것은 귀측도 잘아는 사실입니다.

현시기 조선반도의 정세는 긴장상태의 완화와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를 하루도 지체시키지 말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에게는 북남불가침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오래동안 토의할 수 있는 시간적여유도 주어져있지 못합니다. (못하고 있습

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빠른 시일안에 부속합의서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토의를 끝내야 하며 가서명한 합의서들을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에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쌍방위원들이 온 겨레앞에 지니고 있는 중대한 책임이고 의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제1차회의에 부속합의서안도 없이 빈손으로 나온것은 군사분과회의에 대한 매우 무성의한 태도이고 북남고위급회담이 군사분과위원회에 부여한 기본사명과 임무를 외면하는 행동이며 (외면하는 행동이고) 온 겨레앞에 지니고있는 중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다음으로 귀측은 지난번 1차회의에서 군사분야의 문제를 이른바 《경중완급》을 가려서 해결하자는 명목밑에 그릇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다를바 없지만, 불가침의 리행분야에서도 그 성격상 특성으로보아 중하고 경한것, 급하고 급하지 않은것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병사의 오발에 의해서도 전면전쟁이 터질수 있는 긴박한 정세가 지속(조성)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사문제를 (《경중》 귀측의 말대로) 《경중완급》으로 따져(서) 해결하려 한다면 《경중완급》을 똑바로 갈라 (야 하고) 실제로 중하고 급한것을 먼저 해결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불가침리행분야에서 실제로 중하고 급한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식몽전화

설치와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키고 북과 남의 무력을 하루빨리 대폭 축소하여 (전반적인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해서) 불가침을 근원적으로 담보하는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미군이 남조선에 그대로 남아있고 북과 남의 방대한 무력이 대치되어 있는 조건에서 우리 나라에서 군사적충돌 가능성이 없어질 수 없고 전쟁 위험이 가셔질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특히 경중완급으로 갈라 평화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실밑에 불가침부분의 조항을 하나하나 뜯어내서 각기 독립적인 문건으로 합의하여 보려는 그런 주장은 아무모로 보나 타당치 못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귀측이 지난번 회의에 부속합의서 안도 없이 참가하였으며 더우기 불가침과 관련된 군사적문제들을 《경중완급》으로 갈라 중하고 급한것부터 해결해 나가자는 명목밑에 급하지 않은것을 급한것으로, 중하지 않은 것을 중하다고 하면서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고 주장한 사실을 두고 (또 오늘은 부속합의서도 없이 그 무슨 조항별 토의과제를 들고나온 그 사실을 두고) 평화문제를 (진실로) 풀어나가려는 귀측의 의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견해는 최근 벌어지고있는 제반 사실들로하여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지로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평화를 바란다면 북남사이에 불가침이 확약된 조건에서 군사적대결을 고취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며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행동을) 삼가하여야 할것입니다.(합니다.)

그런데 불가침을 리행하기 위한 군사분과위원회가 열리고있는 오늘에

와서까지(도) 귀측에서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북의 위협》에 대해서 떠들면서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을 고취해(주장해) 나서고 있으며 그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합의서리행을 《류보》하겠다고(까지) 서슴없이 공언하고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귀측은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 놓고는 그 공백을 메운다고 하면서 유명무명의 군사연습을 더 크게 더 자주 벌리고 있으며 긴장을 격화시키는 여러가지 군사적조치들을 련속 취하고있습니다.

더우기 우리가 귀측의 행동을 놓고(행동에 대해서) 엄중시 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그 모든것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바라지 않는 미국의 정책과 일맥상통하다는 사실입니다.(일맥상통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있지도 않은 우리의 《핵개발》문제를 가지고 그 누구에 대한 군사적공세까지 운운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잘알려져 있습니다.(세계가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 거래는 군사분과위원회 회의에 립하는 귀측의 불성실한 립장과 자세를 놓고 크게 실망하고 있으며 우리 분과위원회 회의자체의 전도와 나라의 평화문제해결전망에 대해(서) (크게)우려하고 있습니다.

귀측이 진실로 평화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당사자로서 실지(실천)행동으로 온 거래가 품고있는 이러한 우려를 가셔주어야 할것입니다.

남측위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무겁고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달안으로 불가침합의사항의 리행을 위한 부속합의서토의를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그러자면 비록 (때) 늦은감은 있지만 오늘 제2차회의에서부터라도 문제토의를 다그침으로써 잃어버렸던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간절한 념원을 안고 우리 군사분과위원회 회의를 지켜보고 있는 온 겨레에게 희망의 밝은 빛을 안겨주어야 할것입니다.(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러한 견지에서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리행과 군사분과위원회 회의 운영 전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립장을 다시금 밝히려고 합니다.

첫째로, 쌍방은 다같이 민족의 념원에 맞게 북남합의서를 성실히, (성실히) 리행해나가려는 옳바른 자세와 립장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온 민족이 념원하고 바라는것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하게 될 북남합의서의 리행입니다.

사실상 우리 겨레는 북남합의서가 (채택) 발효된 것을 제2의 7.4 남북공동성명을 맞이한것처럼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그것이 하루빨리 리행되기를 애타게 바라면서 합의서리행대책을 토의하고 있는 우리들을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것 만큼) 북과 남은 분과위원회 회의운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반드시) 합의서리행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는 겨레의 이 절절한 념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온 겨레가 것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민족공동의 평화강령, 통일강령인 북남합의서를 어느 일방이 자기의 리해관계에 복종시키려 하

거나 정략적목적에 리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북남사이에는 그러한 좋지못한 선례가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0년전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탄생시켜놓고도 일방이 그것을 정권유지에 정략적으로 리용함으로써 민족을 크게 우롱했던 수치스러운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20년전과 같은 그러한 불행한 력사가 되풀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측의 공식정책협의회들에서 합의서리행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론의(론거)가 반복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있습니다.

특히 귀측의 책임적인 당국자들은 우리의 그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개선과 관련된 다른 (모든) 문제들의 해결도 기대할수 없다고 함부로 공언하고 있습니다.

귀측의 이러한 언행들이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지 않는 의세가 있지도 않은 우리의 《핵개발》을 구실로 합의서리행을 류보할 것을 귀측에 음으로 양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과 때를 같이하고 있는것은 (참으로) 주목되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가 귀측이 군사분과위원회 제1차회의에 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도 없이 빈손으로 나온 사실을 놓고 것처럼 엄중시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겨레의 념원과 어긋나는 이 모든 움직임과 맥락을 같이하고있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1차회의때에 귀측에서 불가침리행문제는 뒤로 미루어 놓고 순리에

맞지 않게 군사공동위원회 구성문제와 군당국자들사이의 직통전화설치문제부터 먼저 토의하려고 시도한 사실 역시 (오늘 그렇게 또 발언한 사실 역시) 민족의 념원에 맞게 북남합의서를 성실하게 리행하려는 자세와 립장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군사분과위원회에서의 문제토의의 진전을 위해 선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북남쌍방이 민족의 념원과 기대에 맞게 북남합의서를 성실히 리행하려는 (옳은) 자세와 립장을 바로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쌍방이 다같이 평화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평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실천이 없이 회의는 회의대로 하고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불가침리행도, 우리 분과회의의 진전도 기대할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로 나라의 평화가 소중하고 그것을 앞당기려는 생각이 있다면 쌍방은 다같이 불가침에 합의한 이상 그에 어긋하는 군사적행동을 (부터) 삼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우리는 귀측이 불가침합의를 리행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평화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대해(서) 의문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귀측의 군고위당국자들은 북남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내놓고 《남과 북의 불가침선언은 하나의 책략에 불과하다》, 《북의 위장평화공세를 간파해서 민관군(군관민)협동(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공언하면서 북남합의를 공공연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해서) 귀족은 올해 군사비까지 지난해보다 대폭 늘이고 전투기와 함선, 유도무기를 비롯한 신형군사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으며(있고) 새로운 형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벌여놓고(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불가침에 합의하지 않은 나라들도 평화와 완화의 추세에 맞게 군비를 줄이고 군축으로 나가고있는 현실과 너무(나)도 판이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도 달라졌고 평화에 대한 민족의 지향과 의사도 비할바 없이 높아졌습니다.

북과 남 쌍방은 어느 누구도 군사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할수 없으며 그러한 방법으로는 그 무엇도 해결할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만일(또한) 우리들중 어느 일방이 불가침에 대한 합의를 어기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방법으로 그 어떤 불순한 목적을 달성해보려고 한다면 우리 민족은 필연코 전쟁과 파괴로 모든것을 잃게 될것이며(이고) 그토록 바라던 통일 그자체도 무의미한 것으로 되어버릴것입니다.(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같이 평화보장문제에 대한 성실한 입장을 가지고 불가침합의사항을 진지하게 토의해나가야 할것입니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낡은 대결관념을 (대담하게) 버려야 한다는것입니다.(합니다.)

(낡은 대결관념을 시원스럽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제1차회의때에도 언급한바와같이(했지만) 우리 나라의 평화보장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가장 큰 내부적인 장애요인의 하나는(가) 굳어진 대결관념에 있습니다.

대결관념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북과 남은 서로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믿음성있는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로 상대방을 경계하고 지어적대시하고있습니다.

대결관념을 버리지 않으면서 평화보장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것은 공리공담이고 거래의 평화념원에 대한 우롱입니다.

북과 남은 불가침에 확약한 이상 우리는 동족끼리 승패를 겨루고 우열을 가르는 시대착오적인 대결자세와 대담하게 결별할 때가 되었습니다.(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군사분과위원회 회의를 진전(전진)시키고 불가침의 리행을 앞당길수 있게 하는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하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불가침리행과 앞으로 분과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몇가지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나는 쌍방이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들에 의견을 같이하고 립장을 같이 취해나갈때 불가침리행과 그를 위한 분과위원회사업이 거래의 념원과 기대에 맞게 순조롭게 추진되게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기본문제토의와 관련한 우리의 견해를 밝히려고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첫째로, 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 토의부터 하여야 할 것입니다.(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 토의부터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1차회의때에도 언급하였지만 북남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는

우선 북남합의서에 충실하여야 하며 또한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전으로 토의를 끝낼수 있게 만들어야 하며 그리고 북과 남이 다같이 받아들일수 있는 공정한것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쌍방은 이러한 견지에서 각각 가지고 나온 부속합의서초안을 조항별로 내려가면서 토의하여야 할것입니다.(하겠으나, 귀측에서 가지고 나오지 않은 이상 우리 부속합의서 초안을 토대로 해서 조항별로 내리 토론할수 있다는 것이 우리 립장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둘째로 부속합의서토의에 이어 《북남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토의하여야 할것입니다.

1차회의때에 쌍방이 각각 내놓은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초안)에서는 기본상 쌍방이 의견이 접근되어있으므로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동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과 위원들의 직급문제, 자문위원을 두는 문제, 공동위원회 기능을 규정하는 문제, (그리고)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서 회의주기문제, 발효문제 등에서 일련의 차이가 있을뿐입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큰것이 (문제가) 아니므로 호상리해와 양보의 정신에서 조금만 협의를 심화시킨다면 쉽게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군당국자들사이의 직통전화설치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직통전화설치문제는 우리의 부속합의서안에도 제5조에 예견되어있는 문제입니다.(예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 쌍방사이의 견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는 직통전화설치문제를 단일부속합의서에 포함시킨 반면에 귀측은 별도의 합의서

를 가지고 나온것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 차이나는 점은 불가침부분의 조항순서에 따라 내려가면서 직통전화 설치운영조항을 토의할 때 협의하여 해결하자는데가 우리의 견해입니다. (립장입니다.) (직통전화설치문제가 무슨 큰 문제가 아닙니다.)

남측위원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평화문제를 열어(풀어)나가기 위한 군사분과위원회사업을 담당한 우리 쌍방위원들의 어깨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늘 회의에서까지 아무런 결실을 이룩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군사분과회의를 열었다는 명색만 내보였을뿐 사상처음으로 북과 남의 군당국자들이 마주앉은 의의가 없어지고 말것이며 그만큼 우리 군사분과위원회에 대하여 가졌던 내외인민들의 기대도 허물어지고 말것입니다.(허물어지게 될것입니다.)

지금 내외의 관심은 군사분과회의가 열렸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회의에서 어떤 결실이 이루어질것인가 하는데 쏠리고 있습니다.

평화문제해결의 중요성이나 군사분과회의의 의의만을 강조하고 있을때가 아닙니다.(강조하는 때는 지나갔습니다.)

쌍방위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문제토의에 진지하게 립함으로써 어떻게 하나 나라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합의를 이룩해내야 할것입니다.(이룩해나가야 할것입니다.)

끝으로 나는 오늘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에 귀측이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리라는 기대를 다시한번 표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남(박용옥) : 수고하셨습니다.

북(김영철) : 발언을 끝내면서 내가 귀측에서 얘기한 기본발언에 대해서 생각되는 몇가지 문제..., 지난 1차회의때서 하지 못한 귀측의 1차회의 그 발언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이어서 밝히고자 생각 합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박용옥) : 어힘 -

북(김영철) : 지금 귀측에서는...

남(박용옥) : 발언에 앞서 너무 저... 그렇게 또...

북(김영철) : 아니...

남(박용옥) : ...또 하나의 기초발언이 되지 않도록 견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시다.

북(김영철) : 쌍방 대환데...,

남(박용옥) : 글썸,

북(김영철) : 견해 밝히겠으니까, 대화라는데 내말 안... 듣기싫으면 나가는 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

남(박용옥) : 아, 그렇지요.

북(김영철) : 그러니까 들어보시요. 그래서...

남(이영호) : 아, 우리측 위원장이 이야길 하고 있는데...

남(박용옥) : 토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이니까...

북(김영철) : 그래서 지난 1차 분과회의때 귀측에서는 앞으로 군사분과회의를 운영하는데 있어 지켜야 할 그 무슨 3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하자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세가지 원칙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원칙이 우리 쌍방 군사분과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 공인된 원칙으로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저로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귀측이 밝힌 남과 북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당사자해결 원칙에 대해서 좀 이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귀측이 내놓은 당사자해결 원칙이 참으로 남과 북이 주체가 되는, 다시 말해서 북과 남의 각계층 민중이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하나로 뭉쳐서 나라의 평화문제, 군사적 문제를 주인이 되어서 풀어나가게 하는 그러한 원칙이라면 두손을 들어서 환영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모든 문제해결의 주인은 그 자신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힘도 그 자신에 있다고 믿고 있는 주체사상의 신봉자들입니다.

또 남북이 채택된 합의서를 채택한 것도 북과 남의 당사자고, 그 합의서를 리행해야 할 사람들도 우리 남북의 당사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당사자원칙이 진실한 것이라면 구태여 반대할 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사자해결 원칙이 조선반도의 통일문제, 평화문제, 여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책임있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큰나라 사람들에게 할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따져야 할 책임과 죄과를 따지지 못하게 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해결할 것을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원칙이라면 그 당사자원칙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측의 당사자원칙이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런 당사자해결 원칙은 우리 인민이 바라지 않고, 또 민족이

원하지 않는..., 그런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귀측의 당사자원칙이 다른 한 측면에서 동일문제, 군사적 문제해결에, 평화문제해결에 광범한 주인의 참여를..., 참여에 제동을 거는 그런 원칙이라면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사자원칙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귀측에서는 이른바 균형추진원칙에 대해서 지난 번에 밝혔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내놓은 이른바 균형추진원칙이 북과 남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중에게 다같이 리익이 되게, 또 다같이 도움이 되게 나라의 평화문제, 군사적 문제를 균형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전제로 하는 원칙이라면, 그에 대해서 역시 크게 반대할 용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측의 균형추진원칙이 반드시 먼저 풀어야 할 중핵적인 문제, 중심적인 문제해결을 회피하거나 그에 제동을 거는 그런 원칙이라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시비를 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모든 문제해결에서 중심고리, 중핵적인 고리에 역량을 집중해야 되고, 또 그래야..., 그래야 그 고리를 풀어야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원칙론자들입니다.

원래 나라의 평화문제에... 이 군사적 대결해소문제에서 균형추진이라는, 이 무슨 수물학적 개념과 같은 그런 우스운 개념을 적용한 것도 사실상 좀 그 타당치 못한 것이지만, 귀측에서 앞에서는 균형추진원칙이란 것을 내놓고, 뒤에서는 경중완급이라는 것을 또다시 잇달아 내놓으면서 중하고 급한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모순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사적 대결상태해소 문제를 그 무슨 열병대 행진이라고 균형을 맞추

어 풀어 나가겠습니까 ? 원래 군사에서 공격때에는..., 우리가 다 군사가 들인데, 공격때에는 보조타격방향이 있고 주타격 방향이 있습니다. 귀측의 군사적인 교리대로 말한다면, 주공방향이 있고, 조공방향이 있습니다.

주공방향에 역량과 기재를 집중해서 그걸 풀어야 조공방향도 전반적 전전선의 균형을 보장한다는 것은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비추어 봐도 귀측의 균형추진원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서는... 우리로서는 생각되는 것이 있다고 미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귀측의 실천성 보장의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귀측은 마치... 마치, 이 원칙을 내놓으면서 그 누가 실천성이 없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부속합의서를 내놓을까봐, 또 그 부속합의서가 실천성이 없는 부속합의서인 것처럼 염려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대해서 말한다면 합의서의 모든 내용을 가장 성실하게, 가장 철저하게, 가장 빈틈없이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귀측이 내놓은 실천성 보장의 원칙이 반드시 풀어야 할 그러한 문제의 실천을 회피하면서 지난 시기에나 내놓았던 “선 신뢰”나 우리 대표접촉 과정에 가져나왔던 그런 “시범사업”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의 실천을 전제로 하는 원칙이라면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귀측의 세가지 원칙에 대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어서 오늘 박준장은 기초발언에 그 어떤 성격의, 그 어떤 성격의... 말하자면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 어떤 성격의 합의서를 채택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채택해야 할, 우리가 만들어야 할 부속합의서의 성격은 북남 기본합의서에 명백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 성격이란 무엇인가? 불가침의 리행과 담보, 보장에 관한 그런 성격입니다. 그 성격을 구태여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명한 성격에 대해서 ... 뭣을, 다시 논의하자고 합니까?

이 성격 자체를 논하자는 것은 역시 하나의 지연술이요.

다음으로 부속합의서를 몇개 작성하는가 하는 문제를 협의하자는 식의 말씀을 우리로서는 했습니다.

부속합의서를 몇개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부속합의서를 몇개 만들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불가침의 근본적인 조항들을 리행하기 위한 부속합의서를 만들겠느냐, 안만들겠느냐 하는 문제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측은 오늘 그러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역시 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만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작성시한 문제입니다. 귀측은 작성시한 문제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찍자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가침에 관한 제12조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이 문제에는, 군사공동위원회에는... 군사공동위원회는 불가침의 리행과 담보를 위해서 구성·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가침의 리행과 담보를 위해서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남측위원 여러분! 그 조항을 다 읽어보시요. 제가 빈말을 하는가...

그렇다면, 이 군사공동위원회를 언제까지 구성·운영하게 되어 있는가... 5월달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5월 19일까지-

그렇다면, 리행하자면, 그 리행에 필요한 기초인 부속합의서가 그전에 나와야 된다는 하나의 논리적인 귀결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한부를 찍은 것이 이래서 “한달내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귀측 총리도 이에 대해서 동감을 가졌기 때문에 평양회의때 한달내로 부속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귀측에서 에...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과 직통전화 설치문제를 먼저 토의하자고 했습니다.

남측위원 여러분! 내 오른쪽 손을 좀 보시요, 내 오른쪽 손...

손가락이 다섯가지, 다섯개 있습니다.

불가침부분은 총 6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조항은 우리가 리행했습니다. 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깐 엄지손가락으로 말하면, 9조 무력불사용, 불가침에 대한 이런 문제입니다.

두번째 손가락은 무슨 문제인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번째 손가락은 무슨 문제인가? 불가침경계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번째는 군사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새끼 손가락은 직통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문제요....

우리는 이 다섯가지 문제를 해결하자고 부속합의서 초안을 내놓았습

니다. 그런데 이 펼친 손가락을 한번 꺾자고 해보시요. 새끼손가락부터 꾸부러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우리가 펼친 이 손바닥이... 남측이 다섯개 손가락 손바닥, 손가락을 다 펼치고 같이 맞받아치면 짹 박수소리가 날 것입니다.

근데 왜 귀측에서 이 엄연한 리치를 모르고 오늘 이래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부속합의서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데 대해서 내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측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지금 “선 협의, 후 작성”으로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그 자체부터 기본발언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상 1조는 귀측에서도 연구했지만 기본합의서 해당부분의 구체적인 리행대책을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참가한 대표로서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상 2조는 “협의한데 따라 북남합의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개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귀측은 이 두개 조항을 진의를 외곡해서 자기 리익에 맞게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 협의, 후 작성”이 합의라도 된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이 두개 조항에 대한 진짜 해석이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협의한다”는 것은 합의서 초안에 기초한 쌍방 토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먼저 협의한다는 것은 합의서 초안에 기초한 쌍방 토의를 뜻

하는 기다...

그리고 “작성한다”는 것은 그러한 토의를 거쳐서 부속합의서를 완성한다는 말이다...

또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기에 무슨 용어상... 그 저 뭐야 술어를 서로 잘못 해석해서 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쌍방회담에서는 여러가지 토의방식과 또 그 무슨 문건 작성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생산적인 토의방식은 토의 기초를 내놓고 서로 협의하고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합의를 도출해낸 북남대화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귀측은 오늘 새삼스럽게 빈손으로 나오기 꺼려서인지 무슨 조항별 토의과제라는 것을 설정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분과위원회 토의과제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미 북남기본합의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 토의과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불가침 부문의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이 자체가 토의과제다-, 새삼스런 토의과제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토의과제가 다르게 있을 수 있소? ...이것이 토의과제요.

토의 기초는 뭐인가, 토의 기초는... 이 과제에 따르는, 과제에 따르는 부속합의서가 토의 기초입니다. 토의 기초를 놓고 작성해서 완성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명할 수 있는 부속합의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부속합의서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이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귀측이 그 어떤 불순한 저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선 협의, 후 작성”이란 귀측의 주장이 것처럼 옳은 해석이라면 내한가지 좀 물어보겠으니깐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엇 때문에 불가침부분의... 이 9조 무력불사용부분, 10조 불가침 문제의 평화적 해결부분, 11조 불가침 경계선부분... 이 문제에 대한 부속합의서는 만들고 나오지 않으면서 어째 같은 불가침부분의 직통전화 설치문제는 부속합의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직통전화... 전화설치 문제도 토의과제를 놓고 설정해야지, 모순되지 않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같은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인데 어째서 협력 교류분과에서는 부속합의서를 다 가지고 나왔는데, 정치와 군사분과위서는 부속합의서가 없이 나왔습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순되는 논리를 가지고 회담장에 나오면 안됩니다. 같은 불가침부분에서도 어떤건 부속합의서가 있고, 어떤 것은 없고... 바로 여기에 귀측이 먼저 협의하고 후에 부속합의서를 만들자는, 그 제멋대로 해석이 단순한 문구상, 리해상 착오가 아닌 그 어떤 불순한 전략적인 목적이 있다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불순한 그런 목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는가...?

첫째로는 불가침리행을 지연시키자는 그러한 전략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귀에는 자주 미국사람들이 귀측당국에 왜 불가침에 서둘러 도장을 찍었는가... 자주 추궁한다는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또 북남관계를 지나치게 급진전시킨다는... 이 추진 정도를 놓고..., 말하자면 다른 말을 한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정협의회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정책적인 립장으로 표명됐다는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측 대표들과 마주 앉으면 남측은 여론사회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소리가 들릴 수 있다, 이렇게 리해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1차 분과위원회의를 해보고, 2차 분과위원회의를 해보고 하니깐, 부속... 해야 할 부속합의서는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또 부속합의서를 가지고 안나온다고 우리가 말하니까 오늘은 무슨 조항별 토의과제라는 걸 들고 나온다... 이것이 뭐인가?

1차때는 부속합의서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지연책을 쓰고 2차때는 토의별 과제라는 것을 가지고 들고 나와서 지연책을 쓰고... 또 순차를 여기면서 토의하자고 지연책을 쓰고... 이렇게 우리가..., 지연술을 쓰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지연책은 우리 대화상대방에 대한 우롱이고, 우리 민족에 대한 사실상의 좋지 못한 처사입니다. 북남합의서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가 귀측이 부속합의서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문제에서 또 문제시하자는 것은 귀측에 있어서는 군사적 긴장상태의 해소..., 군사적 대결을 지속시키려는 그런 정략적인 목적도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침에 합의한 그 자체가 긴장상태의 완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침을 리행하면 군사적 대결은 완전히 해소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는 평화가 깃들 수 있습니다. 그때에 가면 사실상 미국도 남조선의 미군을... 말하자면 옛날처럼 남침위험의 구실로

그대로 주둔시킬 아무런 명분도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립장은 아시아의 유일한 대륙기지인 남측 땅에 계속 자기군대를 주둔시켰으면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립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긴장을 계속 격화시키고 대결도 지속시켰으면 하는 것이 미국사람들의 본심입니다.

우리는 귀측이 이 미국사람의 이런 립장은 둘째치고, 본회담인 우리 분과위에 나와서 내놓고 말합니다.

“미국은 외세가 아니고 전쟁억제력”이다... 이런 말에도 상당한 정도로 우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각성을 높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미국의 의도와 같은 소리가 아닌가 이거? 그렇다면 대결을 지속시키자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현실적으로 기본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불가침에 합의한 이후 귀측의 군사적 움직임에선 참으로 주목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기사 불가침에 합의한 이상 군비를 축소하고 대결을 지속하는 근원 청산적인 조치는 못취한다 할지언정, 옛날 상태를 현상태로 유지하거나 또 그 방향에서 무엇인가, 무엇인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은 것이 불가침 리행에 대한 의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귀측이 오늘 부속합의서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귀측의 기본발언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논평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부속합의서 초안을 가지고 나온 것만큼, 우리 합의서초안에 기초해서 토론을 심화시켜 보았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정중한 의견을 제기합니다.

남(박용옥) : 수고했습니다. 김위원장-

지금 김위원장 발언을 놓고 보면은 우리측이 아무리 잘 생각하고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논리에도 맞지 않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 이것을 자꾸 강변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원칙적인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것으로 와서 토의를 해가지고... 진짜 하기로 돼 있는, 시한부가 박혀있는 그런 문제들을 언제 논의할 거냐...? 고위급회담 한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제 할거냐...?

상당히 지금 곧 우려가 되는 바인데 내가 지금 저 일단 김위원장이 북측 기초발언을 했으니까, 지금 김위원장이 얘기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길 좀 하겠습니다.

우선 부속합의서를 안가지고 나왔다..., 무슨 성실하지가 않다..., 무슨 본래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이런 지금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이미 지난 1차회담때 구체적 이행대책을 담은 두개의 합의를서를 귀측에 제출했어요. 하나는 아까 저 이 김위원장 얘기대로 5월 19일 이전까지 하게 돼있는 시한부로 명시되어 있는 군사공동위원회에 관한 합의를서를 이미 자세하게 귀측에게 제시를 했고, 또 이미 쌍방간에 오래 전부터 원칙적으로 합의되었고, 또 이번 합의서에도 이미 명시적으로 해 놓은 직통전화문제 - 이 합의를서를 내 봤어요.

어떻게 보면 부속합의서라는 것은 기본합의를서를 뒷받침을 하는 합의서가 부속합의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귀측도 보면은 또 단일부속합의서라는 그 명칭하에 거기다 군사공동위 조항도 넣어 놓았고 직통전화 조항

도 그 설치권도 넣어놓은 걸 보면은... 아마 그 두 문서를 부속합의서의 또 부속합의서로 보는 모양인데... 그런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미 이 시한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부속합의서 두개를 귀측에 명확히 제시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과위할 때는... 현실적으로 시한주기라든가 모든 걸 고려해서 약속한 합의사항이라든가... 이 두가지 문제를 놓고 토의하자- 이것이 군사분과위원회가 지금 현실적인 당면과제다...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시에 단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이것은 토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또는 토의과제도 제시를 했는데, 오늘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전혀 지금 이런 과제...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기조연설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미 쌍방간에 공통인식이 됩니까?

첫째 기본합의서에 충실하자고 우리 합의했어요. 그 다음에 기본합의서에 충실하고 7차 고위급회담까지는 하나의 문서를 서명·발효시키자고 합의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이면서, 거기에다가는 기본합의서 12조에서 임무와 기능까지 명시를 해 줬어요.

그리고 시한도 정해줬어요.

이 문제는 귀측 정무원총리께서도 지난 6차회담에서 “일괄타결, 동시집행”을 주장을 하셨는데..., 그러나 뭐라고 얘길 또 하느냐-

쌍방이 선차성을 부여하고 또 문제의 성격이 어느 정도 독립적인 성

격을 갖는 것은 건별합의하고 즉각 실천할 수 있다—

왜 이런... 지금 위에서 한 말을 갖다가 밑에서 뒤집고 앞에서 한 말을 갖다가 뒤에서 뒤집는...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귀측의 입장에서 또 직통전화라는 것은, 군사공동위라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의 성격상 독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또 이미 합의된 내용 아니냐...?

이런 문제에서 귀측의 지금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나 자신은 그걸 갖다가 귀측의 의도가 이게 뭐냐 라는 것을 생각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왜 우리가 무슨 아까 균형... 무슨 애길하면서, 교류— 여기서서는 부속합의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왜 정치, 군사는 안가지고 나오느냐...?

지금 아마 저 김위원장은 처음부터 자기는 여기에 참석했다..., 그 상당히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를 테니까, 상당히 자부심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조항을 좀 읽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교류협력 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 구성문제가 다르고, 군사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 구성의 성격·기능이 다릅니다.

정치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 구성을 조항에 명시하지 않고 “연락사무소” 했어요. 각 위원회별로 사안이 같질 않습니다.

공동위원회는 우리측에서는 4개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니까, 거기에 대한 4개의 부속합의서를 갖다가 내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이 공동위원회

를 갖다 1개 만들게 돼있으니까 거기 것을 낸서요. 그것을 귀측에서 부속합의서로 생각해도 좋아요 우리는 합의서라고 말을 붙였지만...

그러면은 왜 하게 돼있는... “시한부적으로 하라”, -이것이 원칙적으로 합의됐다, 실천하라, 라고 양 총리께서들..., 기본합의서를 봉해서도 이미 다 지시가 됐고, 명시됐고, 또 양측의 최고당국자에 의해서도 재가가 돼서 발효된... 이러한 약속사항까지도 지금 엉뚱하게 또 다른 무슨... 그 다른 해석을 하고 단일 부속합의서를 내가지고 와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마치 다른 것도 안되겠다는 식의... 이런 지금 입장을 취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 아까 서두에서 무슨 7차 고위급회담의 전도에 대해서 무슨 운운하셨는데... 7차 고위급회담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 여는데 7차 고위급회담에서 발효시켜야 될 수 있는 문제는 공동위 구성 문건, 시한 박힌 그거... 하합니다.

그 다음에 직통전화문제... 이거는 이미 원칙적으로 합의되고 실천문제만 남았고..., 귀측에서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김위원장도 이걸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것을 왜 다른 문제와 같이 가지고서는 지연시키려는 이러한 자세를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왜 무슨 실천의지가 없다, 뭐 이쨌다 라고서 애길하는데... 지금 얘기해 봅시다.

과연 지금 귀측에서 하고 있는 그 부속합의서 내용... 나도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번 다 읽어 봤어요. 이것은 지금 귀측 저, 정무원총리... 연

형목 정무원총리가 언급한 기본합의서의 불가침부문에 제기된 “매개 조항들”이란 실천적 대책을 옹계 잡는 원칙하고도 맞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 귀측이 제시한 그런 그 내용들은 이견 구체적 대책이 아닙니다. 하나의 또 하나의 일방적인..., 이제까지 계속 주장해오던, 한 몇십년 동안 주장해오던 그런 걸 다시 다 한보따리 싸가지고 나와가지고 조항별로 거기다 나열해 놔는데...

이것이 무슨 구체적인 이행대책이냐...?

또 그것이 한달내로 해결될 문제들이냐...?

지금 고위급회담 한달 앞에 놓고서, 그것을 갖고나와 가지고서는 그 부속합의서라고 한달내에 합의하자냐...?

이런 것이 안된다는 것이고, 지금은 진짜로 불가침..., 이제 합의가 됐 으면은 어떤 문제가 지금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되느냐...?

무얼해야 무력충돌을 막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고려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염두케 됩니다.

다음에 부속합의서 시한... 시한돼 있는 것을 지금 공동위원회에 얹어 가지고서는, 그걸 링크시켜 가지고, 그걸 연결시켜 가지고서 하는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려 두지만 시한으로 박힌 것은 군사공동위원회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분과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지금 원칙문제 이런거..., 기본자세문제 논하려고 여기 나온거 아니예요.

지금 자세 논하려면, 이견 한없이 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한된 시간내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 일이 시한이 적혀진 그걸 어떤 경우든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양 총리를 통한 약속이고, 양국 최고당국자간에 이미 승인된 약속사항이에요. 그것을 지금 뒤집을라 그러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저 다른 원칙을... 합의도 안한 사항을 가지고서는 시한도 없는 걸 갖다가 시한으로 내세워 가지고 지금 뒤집겠다는... 지금 자세로 나온 겁니까?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것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 총리께서도 6차회담때 얘기했지마는 기본합의서 자체가 단순한 원칙적이고 방향적인 내용만을 담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기본합의서 자체에도 이미 실천을 전제로 해서... 여기다 필요한 기구들의 설치를 규정하는 실천성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 기본합의서이고, 거기에 따라서 분과위원회... 이미 합의됐습니다.

또 귀측 총리도 구슬도 서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기본합의서도 해봤고 분과위도 구성됐으면은 실제 구슬, 구슬 하나 하나를 꿰는 작업을 해야 될텐데... 지금와서 다시 무슨 구슬이냐, 지금 무슨 줄로 하느냐, 이런 거 논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한이 분명히 있는 것은 시한대로 빨리 약속대로 하자, 그리고 지금 견해가 일치 안되는 거는... 우리가 군사분과위 한번하고 말꺼냐? 아니다 이거요.

일주일에 한번 할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달에 한번 돼

있지만 필요하다면 수시로 할 수도 있고, 계속 머리를 맞대고 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다시 한번 생각해야 겠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무슨 몇개 과제를 들고 나왔냐고 운운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 우리가 왜 무력사용이라든가 무력불침략이라든가, 우발적 충돌..., 왜 개념을 정확히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닭다리 뜯고 오리발을 내민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닭다리 뜯었으면 접시에 다같이 닭뿔이 나와야 됩니다.

한사람은 꿩다리가 나오고, 한사람은 오리다리 나오고... 이러면은, 그런식이 되면은 합의서를 뭘 해봐도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무력사용... 거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뭐가 필요하느냐?

무력불사용을 약속을 하고... 무력불침략을 약속하고도 상대방에 피해를 주는 무력사용이 나온다면, 무력침략이 나오면 방도가 없는 겁니다.

...전쟁입니다. 거기에는 방도가 없어요.

문제는 기본사업 합의서도 해봤고... 다 우리가 해봤으면은, 우리가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발적으로 충돌 할 수 있다....

김위원장 잘 언급했어요. 한 병사의 실수가 이게 전쟁으로 연결되고... 문제의식을 잘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그런 사태로 인해서 충돌사태가 나와서는 안되겠다... 그걸 방지를 해야 됩니다.

또 무력불침략... 다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우발적으로, 어떤 비행기가 항로착오가 생긴다든가, 또 함정이 남의 지역에 들어 간다든가...

북(김영철) : 거, 무슨 말을 하고 있는거요?

남(박용옥) : ...그걸 격침시킬거냐, 격추시킬거냐? 하기 전에...

북(김영철) : 무슨 말씀을 하자는 기요?

남(박용옥) : 그것은... 처리해 가지고 우리가 조치하는 문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이거요.

북(김영철) : 거, 무슨 말을 하자는 기요?

남(박용옥) : 좀 기다리세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니까... 좀 듣고 하십시오.

북(김영철) : 그만 두라우!

남(박용옥) : 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불침략을 약속을 하고,

...침략을 약속을 했는데,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영토를 침범하게 된다면 그거 다 협정의 대상이라 이거요.

그런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오는 문제지, 지금 귀측에서 제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젠니까?

하루이틀 해결문제가 아니예요. 그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토의할래도 토의할 수가 없는데...

내 지금 한가지 문젯습니다. 이말 하고서 한가지 문젯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그 부속합의서 문제 때문에, 이것을... 공동위 구성하는 걸 전

제조건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견해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은 그것은 계속 만나서 협의하도록 하고... 꼭하게 되어 있고, 시한이 돼있는 것은 빨리 우리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본합의서 정신에 맞는 것이고, 양 총리들이 합의한 그런 약속사항에도 맞는 것이고, 양 최고당국자께서도 재가한 이런 기본 합의서... 여기에 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다른...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귀측이 너무나도 잘 알면서 그런 안을 들고 나와서... 이것이 지금 제 7차 고위급회담전 까지 이것을 해야 된다...

도대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게 타당한 거냐?

진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이해가 안된다고... 이해가 안된다고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수십년 동안 해결 안되는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지금 그걸 하나 내놓고서는, 한달내로 토의해 가지고... 지금 하자는 거냐...

우리가 아무리 지금 남북사이에 팽팽하게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안하느냐는 것을 우리가 타진해 봐야..., 또 그것을 나름대로 평가하고, 안을 가지고 나와야지...

자, 부속합의서문제... 우리 이미 2개나 합의를 내놓고 이것을 하게 돼있는거... 자 빨리 하자..., 분명한 사실을 갖다가 그렇게 안되니까 이야기가 자꾸 길어져도 이걸 소용이 없어요.

하기로 돼있는거 빨리 우리가 해서 이것을 갖다가 일단 이것을 해결하고, 직통전화... 정 그것을 뭐 저 빨리 하기를 원치 않다면 시한이 돼있는 공동위원회 구성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위원접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직통전화도 이미 다 별 의의가 양측에서 없으니까 그걸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속합의서 문제, 자-과연 딱 앉아서 가지고 잘 상의를 해서, 자 어떤 성격으로 할 것이냐, 자 여기다 어떤 문제를 포함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일단 서로 개진을 한 다음, 자-그런 방향으로 우리 가서 해 보자...

얼마든지 이견 토의가... 있는 문이 활짝 열려있는데 왜 그것을 지금 고집하느냐 이거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한달밖에 안남은 7차 고위급회담, 생각해 보십시오.

5차 회담때는 서울에서 서명하고, 6차 회담때 평양에서 발표시키고, 7차 회담에도 우리 국민한테, 또 귀측 인민들한테 뭔가 좀 보여줘야 될게 아니냐? 허나 말만 하고 문서만 교환하고 뭔가 행동이 하나도 안나가니... 이것이 지금 무슨 회의냐?

이래 가지고 과연 7천만 우리의 동포들이 이 회담이 지금 제대로 나가는 회담이라고 과연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런 우려감을 줘도 안되고 의혹을 줘도 안되니까, 단 한가지라도... 그것도 이미 약속해 놓은 것, 빨리 해서 보여주자-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군축문제도 논의하고 신뢰조성문제도 논의하고 분기위에서 이런 문제도 논의하고, 다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정식으로, 김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제의하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하게 되는 거라도... 공동위원회 구성, 또 직통전화문제, 빨리 이거 문안조정 작업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계속 인제 토의해 나가자— 이거요.

우리가 얼마든지 앞으로 계속 만날 사람들인데 못할 것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안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괜히 음성만 높아진 것 같은데, 그건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이거 잘해보자는 뜻에서 나두 그런거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의논좀 합시다.

그리고 부속합의서문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어요.

북(김영철) : 응...

남(박용옥) : 그거 한달내에 안되는거 뻔하잖습니까?

북(김영철) : 응...

남(박용옥) : 에— 자, 김위원장이...

북(김영철) : 내 좀 말씀 합시다. 우선 이제 많은 말씀을 했는데 두서가 없
다나니까 갈래를 잡을 수가 없어요.

남(박용옥) : (웃음)

북(김영철) : 무슨 문제를 정립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머리속에 잘 정리가
돼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생각대로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정확히
박준장이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침조항의 구체적인 리행문제가 지금까지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
였다... 그런데 이거 뭐 당장 한달내에 되겠느냐...?

시간을 무한정 끌어야 된다는 식의 책임이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박용옥) :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북(김영철) : 그래서 - 아니 내가 얘기..., 나는 박준장의 얘기를 참을성 있게 다 들었소.

남(박용옥) : 응...

북(김영철) :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참으로 좋지 못한 발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뭘 바라는지 압니까? 군사적인 문제, 평화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통일의 광장에 가자면 두개의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대결상태라는 장애물이 있고, 하나는 군사적 대결상태라는 장애물이요. 이 장애물 때문에 통일광장에 갈 사람들이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불가침은... 그것을 리행하고 담보하는 문제를 토의하는 이 문제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군대에서는 장애물 제거하기 여러가지 공병기재를 동원해서 제거할 수도 있고 마갑채문(마갑장으면=마음에 들지 않으면) 총과 대포를 써서 제거할 수도 있지만 이건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마갑채문 총과 대포를 쏘서... 그 없이 살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그 문제의 회피를 뒤로 미루거나, 뒤로 미루거나 지연시켜선 안됩니다.

어차피 사람이라는기 해야 할 일이든 힘들어도 해야 되고 이려워도 해야 돼... 그걸 외면해 버릇하면 큰일 못합니다.

옛날부터 태산이 높다해도 하늘아래 뉘이라...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은

먼저 해야 됩니다. 여파리로 자꾸 부스럭지나 긁어서 큰기 얻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똑똑한 대답을 못했어요. 무슨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문제와 협력교류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문제, 그 다음에 정치분과위원회에서 노리는 무슨 그런 문제가 다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 하신 것 같은 데...

우리가 말한건 그것이 아닙니다.

협력교류분과위에서는 왜 부속합의서를 들구 나왔는데 군사분과위는 부속합의서를 들구 나오지 않았느냐?

매 조항별... 협력교류분과위는 다 들구 나왔소?

남(박용옥) : 대답할까요?

북(김영철) : 가만히...

남(박용옥) : 대답해요?

북(김영철) : 성급하면 안된다는데... 빨리 끊는 가마는 인차 식소!

남(박용옥) : 그거, 아주 그...

북(김영철) : 그 다음에... 에 그 다음에... 우리, 같은 불가침부분을 놓고 보지요. 같은 불가침부분에서 같은 조항인데, 왜 직통전화 설치문제는 부속합의서를 가지고 나오고 다른 문제는 비록 그 설사 어렵다 하단 말 이야...

어려워도 생각하는, 그 무슨 부속합의서를 가지고 나와야 될기 아닙니까? 어째서 그렇게 모순되게 해석합니까? 협력교류분과위원회는 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이 합의서를 그렇게 해석하고, 남측 군사분

과위원회는 이렇게 해석하고, 정치분과위는 이렇게 해석합니까?

군사분과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어째서 그 부속합의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가?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라니까 이제 하는 말씀이 불가침리행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풀기 어려웠기 때문에 순간에 해결할 수 없다..., 응 그러니까 이 건 장시간에 해결할 문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남(박용옥) : 어, 그렇게 틀린 해석을 하지 마세요. 그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틀린 해석하지 말라고...

북(김영철) : 그래서, 그게 우선 문제점이 있다...

남(박용옥) : 틀린 해석하면 안되니깐...

북(김영철) : 사실상 무슨 부속합의서를 가지고 안나오는 거야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혹은 저기 무슨 예비주머니라도 있습니까? ...없는 건 현실입니다.

남(박용옥) : 아니, 가지고 나온 합의서를 왜 자꾸 안가지고 나왔다고 그래요?

북(김영철) : 가지고 나온 합의서를 나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귀측이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나는 인정했어요. 기초발언부터 다시 연구해 보라구요.

그 다음에 직통전화 설치문제와 관련해서도 귀측에서 부속합의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 우리는 단일합의서 안에 포함시켜놨는데 차이가 있다면 단일인가 개별인가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왜 앞의 9조, 10조, 11조의 부속합의서가 없는가...? 이걸 내가 말하는

기요.

직통전화 설치문제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직통전화 설치문제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주겠습니다.

직통전화를 설치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가 없습니다.

설치하자는 것이요. 그래서 설치하려는 문구에 합의를 하자는 것이요. 이것은 의지가..., 우리의 의지를 의심하지 말란 말이요.

직통전화 설치하는 기 무슨 큰 복잡한 문제요? 통신반에 맡겨서 설치하면 간단한 문제라구 그게...

또 군사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문제도 거기에 관한 합의를 7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우리 탄생시키자는 것이요.

우리의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요.

남(박용옥) : 그래 -

북(김영철) :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거듭 말하지만 불가침 리행과 관련된 기본문제 토의를 뒤로 미룬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동시에 토의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구태여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 하지 않는다구요.

불가침 리행에 관한 제9조, 10조, 11조의 부속합의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상 회합마다 하나의 중심고리입니다. 대화로 기록을 하자는 기요?

귀측은 기본합의서에 대한 하나의 위반사건으로, 그리고 내용은 부속 합의서에 대해서 무슨 이러쿵 저러쿵 얘기했습니다. 실천성도 없고, 또 무슨 기본합의서와 같은 선언적이고... 뭐 이런 합의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합의서를 놓고 말하자면, - 실천성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부속합의서에, 우리 부속합의서 무력 불가침의 1조가 무엇이였는가? 대치된 계선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다는 실천적인 조항을 담았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일어 납니까? 대치된 계선의 무력증강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1차대전, 2차대전, 모든 전쟁의 경험은 대치된 계선의 무력을 증강하는가 하는 것부터 전쟁이 시작이 됐소.

그래서 우리는 전쟁 1조 1항에 무력을 증강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실천성이 없는 대책이요? 선언적인가? 우리 1조 2항을 놓고 보란 말이요.

이렇게 전쟁형태를 막을 수 있는 습격·파괴·교란·살인·납치 등을 그만 두라는 것이였습니다. 이런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저지하자는 실천적인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실천성이 없는 조항이요? 내용은 가장 정당한 합의서 초안에 대해서 그렇게 제멋대로 해석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통전화 설치문제와 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직통전화 설치문제부터 토론하자... 내 저답 이야기했지만 아이들한테, 국민학교 아이들한테, 산수를 금방 배운 아이들한테 좀 씬세기라도 해봅시요.

어떻게 숫자를 세는가? 틀림없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까지 셀 겁니다. 그러나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은 하나 했다가 셋을 할 때도 있고, 아무리 해도 헛갈린단 말이야...

남(박용옥) : (웃음)

북(김영철) : 그런 아이는 공부를 제대로 못했거나, 공부를 제대로 못했거나 또는 생리적인 오차가 있는 놈이야, 그건 - 그런 학생들은...

남(박용옥) : 좋은 말 많이 하시는구먼...

북(김영철) : 그러기 때문에 원래 순리대로 하자면 모든 조항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가지고 나와서 순차별로 토의해야 됩니다.

순차별로 토의하는 기 하나의 순리란 말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구태여 길게 묻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내놓은 불가침조항 9조부터 토의를 하겠소? 안 하겠소?

둘째, 묻는 말에 대답해요. 어째서 불가침부분중 직통전화문제 부속합의서는 가지고 나오면서 다른 불가침 리행분야는 부속합의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불가침 리행을 위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전체 내외인민들에게 선포해도 리롭겠는지...

세가지 문제에만 대답해라... 이 세가지 문제만 대답하고 오늘 회담을 계속합시다.

남(박용옥) : 수고하셨습니다. 김위원장 - 자, 지금 인제...

북(김영철) : 다른 말씀하지 말고, 요 세가지 문제만 대답하고 하라우.

남(박용옥) : 우리 분명히 얘기하는데...

북(박성진) : 박준장 !

남(박용옥) : 아, 자 잠깐, 잠깐만...

북(박성진) : 시간이 없는데...

북(김영철) : 그리고 내 있지 않습니까?

남(임태순) : 잠깐 계세요!

북(김영철) : 내가 하나 있는데...

남(박용옥) : 자 — 잠깐, 잠깐 있어요!

북(김영철) : 아니, 아니, 하나 잊어버렸는데... 가만 있으라, 가만 있구...

내 아직, 아직 내 얘기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임태순) : ...발언권을 넘겼으면 넘겨 줘야지.

북(김영철) : 그리고 이제 시한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임태순) : 거 말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북(김영철) : 아니...?

남(임태순) : 말 공부하는 자리가 아닌데...

북(박림수) : 가만히, 가만 있어 거기는...

남(임태순) : 발언권을 넘겼으면 넘긴대로 놔 둬야지.

북(김영철) : 선생은...

남(임태순) : 왜 끼어들어요?

북(김영철) : 선생은 누구... 위원장 말을 말야 말 공부라 하오?

남(임태순) : 아니, 지금 이쪽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김영철) : 아니, 아직 내가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 계속하겠단 말이야.

남(임태순) : 이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깐...

북(김영철) : 가만히 있으래도 그래...

북(박림수) : 가만 좀 있어!

북(김영철) : 아니...?

남(박용옥) : 그리고 여기도...

남(임태순) : 지금 뭐 일방적으로...

북(김영철) : 가만히, 가만히 있으라는데... !

남(임태순) : ...일방적으로 회의를 하는거요?

북(김영철) : 내가 다시 한마디만 하겠어. 내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단 말
이야!

남(박용옥) :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북(김영철) : 이제 시한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공
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를 한달내에 토론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내가 명백히 귀측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좀 어쨌습니까... 사고력을 발동해 드리자고 합니다.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말하자면 석달내로 합의서가
발효되도록 구성·운영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5월 19일이
겠지요? 인정하십니까?

남(박용옥) : 5월 18일...

북(김영철) : 아 5월 18일! 그렇게 그건 틀림없지요.

남(박용옥) : 그렇죠.

북(김영철) : 그런데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12조 합의사항에는 구
성될 공동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불가침의 리행과
담보문제를 위해서 공동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박용옥) : 고 밑의 거는...?

북(김영철) : 아, 글썸 그것도 하는게지요. 그것을 부인..., 그것도 한다...

불가침을 리행... 불가침을 리행하고 담보하자면 어떻게 리행하겠는가 하는..., 귀측의 말대로 하면 준거, 그 부속합의서가 있어야 된다...

남(박용옥) : 으흠...

북(김영철) : 그런데 공동위원회는 5월 18일, 19일에 구성·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 구성·운영될 공동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초, 일할 수 있는 일감, 이것이 부속합의서다... 그러니 그 부속합의서도 그전에 구성·운영되어야 한다는 논리적인 결실,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귀측 정무원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양회담때를 다시 내 인용하겠어요.

세계 분과위원회는 이미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정식으로 채택·발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1개월이내에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될 것입니다... 정원식 총리의 말입니다.

총리는 이렇게 말하고, 총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나오고..., 분과위원회 박준장은 1개월이내 할 수 없다고 하고...

우리가 마치도 시한부를 찍은 것이 일방적인 것처럼 해석하는데, 그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총리 말이 맞소? 박준장 말이 맞소?

남(박용옥) : 내가 이제 답변을... 답변을 하겠소.

남(채준석) : 거 저, 『박준장』 하지 말구요, 『위원장』— 이렇게 그 명칭을 불러야 할 게 아니예요?

북(김영철) : 가만히...

* 장내 잠시 소란

북(김영철) : 가만히…,

남(채준석) : 위원장이라고 우리는 깍듯이 하는데 말이지, 그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될거 아니야?

북(김영철) : 가만 있어!

남(박용옥) : 아,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내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북측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유념시키죠.

내 서두에 얘기했지마는 우리가 양측 정부로부터 임명받은 정부와 군을 대표하는 공식대표로서 우리가 칭호를 위원장으로 하기로 했지요.

거부하십니까…?

했으면 한대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지금 아까 김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했는데, 우선 편의상 내가 순서를 김위원장 말대로, 아마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니까 순차적으로 안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이해하시요.

시한부, 공동위구성 시한부는 3개월내… 5월 18일, 19일은 그건 명확히 이해하고 계시고, 또 불가침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군사공동위를 구성한다…?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군사공동위에는 뭐뭐, 뭘뭘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 추진하라고 명확히 되어 있어요.

그 하계 돼있는,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불가침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수단이 되는 겁니다.

다시 부속합의서를 만들어서 공동위원회에 주겠다는 이 생각은 귀측의 무언가, 지금 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두번째로 6차회담때 우리 총리께서 한달내로, 작성은 한달내로, 부속 합의서 작업을 시작하는 합의를 한달내에 작업을 시작해서... 그것이 토의되고 언제 작업이 끝날지 모르지마는 그 얘기를 마치 한달내에 부속합의를 작성·완료하는 식으로 왜곡,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잘 말씀하셨습니다. 또 귀측에서 공동위구성문제, 직통전화 문제... 하면 한다, 좋습니다. 절대적으로 환영합니다.

바로, 하면 하기로 한다는 거 귀측의 입장이고 우리도 이것을 반드시 해야겠다 하는 입장이니까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공동위원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마는 명시적으로 시한을 부여했고 거기에 대한 불가침이행 보장을 위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의 그 임무와 기능이 명시돼있다... 그것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거 하는 문제를 왜 다른 문제와 연결시켜서 하려 하느냐...?

우리가 부속합의서, 다른 저 분야의 부속합의서 안하겠다 그러니까?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문제가 부속합의를, 어떤 성격의 부속합의서... 또 이것을 마침... 하나냐, 몇개냐, 이거 토의를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토의도 안해보고 무조건 한개짜리 떡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합의하자... 또 내용자체가 수십년간 해결되지 아니 한 문제를 가지고, 갖고 와서 도대체 한달만에 하자고 하는 귀측의 입장이 그게 타당하고 귀측이 그게 합리적이라고 과연 생각하느냐?

우리가 부속합의서 하자는 겁니다. ...하는데 먼저 시한성으로 명시되어 있는거 하고, 그 다음에... 하기로 합의했고 실천이 용이한 직통전화 하고, 그리고 7차 고위급회담에서 서명·발효시키고...

그 답에 우리가 계속 만날테니까... 부속합의서 지연시키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이 순간은... 고위급회담이 한달 밖에 지금 안남았잖아요? 그러면 두개... 지금 별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다소의 견해차이도 있으니깐 빨리 위원접촉을 시켜가지고..., 지금 시간도 뭐 다 갔는데 위원접촉을 빨리 해가지고, 문안조정이라도 우선 작업에 들어가자....

부속합의서 그거 우리가 분과위원회 계속 할 테니까...

왜 그걸 우리가 지연한다고 의심합니까? 그러지 말라 이거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왜 과제를 제시했느냐?

내가 아까 누누이 설명했잖아요. 이 불가침 조항과 관련한 것을, 그래도 이런 문제를 한번 토의해봐야 한개로 할거냐, 무슨 두개로 할거냐, 열개로 할거냐, 다 얘기가 될테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아 뭐 한가지 제의를 합니다. 위원접촉을 해야 겠지요.

북(김영철) : 가만 있어.

남(박용옥) : 아무래도 시간이 되니까....

북(김영철) :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남(박용옥) : 네 말씀하세요.

북(김영철) : 시간이 갔기 때문에 회담을 결속하려는 의지 같은데...

남(박용옥) : 아네요. 상관없어요. 계속 토의 물고 가세요. 계속할 수 있으니까...

북(김영철) : 나는...

남(박용옥) : 아 시간제한 없으니까...

북(김영철) :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측에서 부속합의서 초안도 없이 빈손으로 나온 이 마당에서는...

남(박용옥) : 아니, 부속합의서를 가지고 방금 제시했는데 왜 빈손이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말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니까 그런 말하지 마세요.

북(김영철) : 내가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부속합의서, 직통전화 설치에 관한 부속합의서... 이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귀측에서 부속합의서를 들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불가침의 기본조항들을 위한 부속합의서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거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안되겠습니다. 시간도 12시가 됐는데 오늘 회담을 끝내자 합니다. 끝내면서 — 내 회담을 오늘 두번 했는데 좀 생각되는 몇가지 문제를 아무래도 말해야 되겠습니다.

남(박용옥) : 가만있자 —, 위원접촉이라는 그 문제를 먼저 좀 이야기 해놓고 다른거 합시다.

북(김영철) : 그래서... 아 내 좀 이야기합시다.

남(박용옥) : 아 그럼시다.

북(김영철) : 두번째로 지금 마주 앉으면서 군사분과위에 입하는 귀측의 그릇된 립장과 자세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개괄해서 말씀드리시 않

을 수 없습니다.

나는 군사분과위원회가 민족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감을 다하자면, 또 평화문제 해결이라는 뜻있는 결실을 가져오자면 첫째도, 둘째도, 세째도 이 분과회의에 립하는 립장과 자세로 똑바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립장과 자세를 똑바로 가지는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인가?

첫째는 이 불가침을 지연시키려는 립장, 그것을 늦잡아 보려는 자세를 대담하게 버리는 것이라고 나는 간주합니다.

대결이 없는 화목한 세상에서, 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충돌이 없는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살자는 것이 우리 인민의 요구고 우리 인민의 지향입니다.

우리 인민의 이런 지향, 요구를 하루빨리 충족시키자면 이미 약속한 불가침을 순간의 지체도 없이 리행해야 되고, 어겨서는 안될 이 불가침을 흔들림이 없이 근원적으로 담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귀측은 오늘 불가침의 리행을 지연시키려는 그런 립장에서, 불가침 리행을 늦잡아 보려는 그런 자세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 이러한 립장 때문에 분과회의때는 불가침 리행과 관련된 부속합의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오늘 2차 분과회의때는 그 무슨 조항별 토의과제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첫번째는 빈손으로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지연전을 썼고, 오늘 회의는 토의... 무슨 조항별 과제라는 것을 들고 나와 또 지연전을 썼다...

그리고 회담장 안에서는, 회담장안에서는 인차 토의될 수 있는 그런

문제부터 먼저 토의하자고 하면서 기본문제 토의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지연전을 썼다….

이러한 지연전, 이러한 지연책은 합의서에 대한… 재삼 말씀드리지만 위반입니다. 또 온 민족에 대한 우롱입니다. 대화일방인 우리에게 대한 고의적인 도전이라고 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귀측은 진실로 불가침을 리행할 의사가 있고 평화가 소중하다면, 군사문제 군사문제 해결이 진실로… 말하자면 급하다면 더 이상 이 지연이라는 이 시커먼 전술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귀측의 립장과 자세에서 바로 잡아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내가 찾아본 것은, 두번 회의를 했는데… 이 군사적 긴장, 군사적 대결을 지속시키고 평화와 상반되는 길로 나가려는 이런 립장과 자세에서 대담하게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군사적 긴장상태를 그대로 두려는 귀측의 립장…, 군사적 대결을 지속시키려는 귀측의 립장은, 또 평화와 상반되는 길로 나아가려는 귀측의 이런 자세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1, 2차 분과위원회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숨길 수 없게…, 감출 수 없게…

우리측은 이러한 귀측의 이런 그릇된 립장, 이런 자세는 회담장 밖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는데 대해서 내가 아까 기본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북남사이에 불가침이 합의된 이 마당에서는 털어놓고 말해서 무슨 다른 이여의 잡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귀측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지금 귀측에서는 군당국에서도 내놓고 말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던 전쟁에 대비하라”, “남북간 합의를 힘으로 뒷받침하라…” 이게 귀측 국방부의 큰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이 나오는가…?

“급변하는 남북한정세 아래서 국방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정규전·비정규전 대비책과 군관민 무슨 총력태세를 갖추라…” 이 귀측 합참에서 제일 큰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말과 때를 같이 해서 회담장 밖에서는 실제적인 군사적 대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귀측에서 만드는 이 잡지 『주간조선』에도 요즘 이런 글이 실리드구만 내 보니까….

옛날에는 하늘에 미국제 비행기가 날랐는데, 지금은 또 다른 나라 비행기가 날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입니다.

바다에는, 옛날에는 무슨 함선만인데… 무슨 독일함선까지도 또 나타날 수 있다 그래요.

남(박용옥) : 그래요?

북(김영철) : 땅에는 또 무슨 땅크까지 나타난다…, 이 땅이 무슨 세계 각국 나라 장비전시장인지 모르겠다…, 이런 재미있는 글까지 나오는 정도란 말입니다.

항차 내 말하자는 거이 뭐인가… 불가침에 합의한 이 마당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가침을 근원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이런 조치는 취하지 못할 망정 지금까지 있던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그래도 지향하는 그런 립장과 자세가 서야 된다….

이럴 때만이, 이럴 때만이 불가침을 리행하기 위한 의지가 있고 불가침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고 민족은... 말하자면 인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평화에 대한 의지... 이런 문제에서 옳은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릇된 입장과 자세를 버리자면 제가 보건대는 근본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근본문제라는 게 뭐인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나라 사람들의 말보다 이 동족과의 한 약속, 동족과 맺은 이 맹세..., 이것을 더 귀중히 하는 자주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정신...!

귀측에서는 요즘 자주에 대해서 자주 말씀합니다.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자주정신을 가질때 우리 회남도 뭐이 될 것 같아요잉?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일시적인 동맹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동맹자는 못됩니다. 외세는 어디까지나 외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내, 박준장은 말이야 위원장이라 얘기했는데..., 나는 어깨위에 달은 군사칭호로 우리 군인들을 부르는데 습관돼 있습니다. 박준장이 나보고...

남(채준석) : 여기는 공식회담장이 아니에요?

북(김영철) : ...가만 있어요! 나보고 "김영철, 김영철 소장"해도 나는 낫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그 문제로 내 시야비야(是也非也) 하자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외세는 외세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박준장과 이 김영철

소장은 같은 동족이요, 어차피 함께 살아야 할 동족이고 또 살게 될 동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나라 사람들보다 동족의 말을 잘 듣는게 좋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해부터 미국사람들의 말을 지켜 봤습니다.

우리 지난 해 불가침에 합의해서... 합의하기 전에, 발효되기 전에 수표를 했습니다.

12월달에 우리 서울에서 불가침에 이렇게 약속했는데... 전반적인 북남합의서를 합의하자 마자 미국무성은 대변인성명을 통해서 “남북간 합의가 담보가 없는 합의다” 이런 성명을 냈었어요.

같은 날 미국방성은 “남북간 합의가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는 별개의 문제다” ...시떠운 소리를 했습니다.

올해 1월초 서울에 왔던 미국대통령 부시는 귀족 당국의 대북교섭이 너무 급속하다는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1월 7일 동아일보가 크게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동아일보에서는 또 부시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그 누구에게... 말하자면 은근히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합의서가 정식발효된 3월달 이후부터는 미국의 군고위급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북남합의서와는 관계없이 작전계획상 미군이 북을 축출하는데 관심이 있다” ...이렇게 모모한 분들이 큰소릴 칩니다.

물론 이것이, 이를테면 그쪽 자유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라고... 우리가, 우리가 말하자면... 리해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사람들의 이런 소리와 때를 같이 해서 귀측에서는, 귀측에서는 합의서 리행을 위한 전반적인 문제를 유보한다는 공식 당국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귀측은 이 불가침 리행과 관련된 우리 이 대화마당에서, 대화마당에서 실제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본문제 조항은 회피하면서... 쉽게 할 수 있다는 명목밑에 정말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하는 문제를 먼저하자는 식의 논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 민족을 귀중히 여기고 민족문제를 자체로 풀어 나가겠다는 진짜 자주정신을 가질 때, 그릇된 립장과 자세도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접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접촉 문제란 모든 문제가 구비된 때 위원접촉을 하는기요...

솔직히 말해서 9조, 10조, 11조에 대한 합의서가 다 나오면 위원접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형편에서는 위원접촉을 할 수 없다고 나는 인정합니다.

남(박용옥) : 가만 있어요,

북(김영철) : ...그래서 이런 형편에서는, 아직 군사분과위원회가 더 회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남(박용옥) : 음, 음...

북(김영철) : 그래서 시간도 많이 갔는데, 오늘 회담은 그만하고 끝냈으면 합니다.

남(박용옥) : 아 그러면은... 가만있어 !

북(김영철) : 우리 북측위원 동무들 어떻습니까 ?

남(박용옥) : 아니, 가만있자... 한가지 저, 한가지 그 저 위원접촉을...

그 왜냐하면 아까 말이에요. 저 뭘니까? 올바른 자세를 갖자... 동감이에요. 불가침약속 — 지연시키면 안된다, 우린 동감이에요. 평화분위기 조성 — 동감이라구... 또 이미 동족간에 약속지키자 이거요.

그래서 군사공동위원회에다가 불가침 이행보장을 위해서 이걸 구성한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해라, 그래서 합의를 한거 아니요 !

그래서... 그랬으니까 여보 김위원장 ! 지금 시간이 없지 않아요? 언제 이걸 질질끄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위, 이것 만이라도 말이야... 다르게 이렇게 저 이 건해가 지금 많으니까, 위원접촉을 합시다. 위원접촉을 합시다.

북(김영철) : 위원접촉이...

남(박용옥) : 예, 위원접촉 합시다.

북(김영철) : 그, 내가...

남(박용옥) : 예...

북(박성진) :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박용옥) : 예, 말씀하십시오.

북(박성진) : 그 지금 보면 자세문제를 아까 위원장이 얘길 했습니다.

하자는 자세냐, 안하자는 자세냐... 이런 문제를 그 논의했는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중심고리... 이걸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 고리가 풀리면 나머지 이외의 고리가 다 잘 풀리는 겁니다. 가장 내적이고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고리를 풀어야 됩니다.

여기 우리 회담 쌍방의 우리 분과위원들은 다 힘을 전력해야 돼요. 비록 힘들지만 이 고지를 점령해야 나머지가 풀린다는 거 우리 위원장이 그랬습니다.

이거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 저 위원접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 박위원장이 아까 얘길했는데... 합의서가, 부속합의서가 오리발이 되겠는지 닭의 발이 되겠는지...

남(박용옥) : (웃음)

북(박성진) : 무슨 오리발이 되든지 닭의 발이 되든지, 뺏을 가지고 나와야 그게 오리발인지 닭의 발인지 식별도 하고, 무슨 토론도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지금 공동위원회하고 직통전화 문제는 있는데, 이건 오리발이라는 것도 없고 닭의 발이라는 것도 없어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기초가 서야 되겠는데 — 응? 기초가... 이거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또 이것이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원접촉에서 문안도 정리하고 구체적인 문제를 타결해야...

분과위원회가 저 저 뭔가 하니까, 위원접촉도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 내가 보긴대, 보긴대...

남(박용옥) : 자 — 자,

북(박성진) : 제가 잠깐..., 이게 가장 그 사물현상에 대한..., 응 사물현상에 대한 그 옳은 사고방식이고 문제해결이, 문제해결의 가장 과학적인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남(임태순) : 예,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위원접촉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쌍방간에 협의를 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위원접촉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시일이 이제 1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특히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해야 될 시한이 이제 박두해 있다...

따라서 이것을 지키려면은 이제 위원접촉을 하든, 이 분과위원회를 자주 열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오늘 회의가 진행된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실질 토의는 사실상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겉에서 말하자면 원칙적인 문제..., 또 어느 것을 먼저 토의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만을 가지고 이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 귀측에서 인정하다시피 합의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군사공동위원회 한가지 뿐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이 문제만큼은 실질토의에 들어갈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쌍방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먼저 토의를 하자는 거고...

또 조금전에 그 김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면,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문

제를 합의서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 빨리 하자고 그런다...

이건 아주 그 대단히... 그 남북기본합의서를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이것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또 남북직통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이진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문제가 아니고 엄연히 남북의 총리가 서명을 하고 최고당국자가 재가를 한 문섭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런 말씀은 잘못 생각을 하신거라고 생각이 되고 해서...

이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이 쌍방간의 의견이 일치되어 있는 두가지 합의서...

이 귀측도, 귀측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가지 합의서를 놓고 실질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북(김영철) : 우리 립장에 대해서 내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남(박용옥) : 위원접촉 같은 거...,

북(김영철) : 이따 다시 얘기해요. 위원접촉은 내가 얘기해요.

이제 문제의 실질적인 토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인 토의가 진행되지 않는 첫째 원인은 귀측이 토의 기초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인 토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합의서 초안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자는 우리의 요구에 귀측에서 호응해 나오

지 않는데 있습니다.

직통전화설치 문제에 대한 문제는 제가 어떤 의지라는 것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거 혼동하지 말고... 그래서 회의도 갖고... 에 저 시간도 갖는데 다음 회의날짜나 지금 정하고 헤어집시다.

남(박용옥) : 글썄, 다음에 어떻게... 좋겠소?

북(김영철) : 우리는 위원접촉은 뭐이 다 마련돼서 구색이 될 때 하는 겁니다.

남(박용옥) : 3차 회의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북(김영철) : 우리측에서 할테니깐..., 이걸 30일날 하기로.

남(박용옥) : 아이구! 30일날... 너무 늦지 않을까요?

북(김영철) : 30일날 해야 될 것 같애.

남(박용옥) : 28일날 쯤 어때? 28일...

북(김영철) : 28일날이...

남(박용옥) : 그날 화요일이라구.

북(김영철) : 아니 화요일인데, 그날이 다른 것도 예견되니까...

남(박용옥) : 27일이나...

북(김영철) : 그게 저 다른... 핵도 다 예견되어 있고, 다른 분과위도 예견되어 있어요. 우리가 날짜를 따져보고... 우리가 계획된 것이 30일 이후에 날짜가...

남(박용옥) : 30일날이 무슨 요일인가?

남(임태순) : 7차회담 날짜가 너무 또 박두돼 있어요.

남(박용옥) : 너무 박두해서...

북(김영철) : 관계 없습니다. 7차회담은 7차회담이구, 우리 분과위원회는
분과...

남(박용옥) : 그래 가지고 공동위... 이거, 이거, 빨리 합의해야 할텐데...
그럼 매일 매일 만날까, 그때는...?

북(김영철) : 내 말하지 않았소? 우린 하자면 하는 사람이예요.

남(박용옥) : 하자면 한다... 좋습니다.(일동 웃음)

그러면 30일보다 앞에는 도저히 안되겠다 이거죠?

북(김영철) : 30일 합시다.

남(박용옥) : 30 —

북(김영철) : 응, 서른날 —

남(박용옥) : 서른!

북(김영철) : 응, 그만합시다.

남(박용옥) : 좋습니다. 끝냅시다.